

어린이창의체험관 설계 표절 '의혹'

(전북도)

도청 홈페이지 게시글에서 공모작 중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과 닮은 설계작품 제시 논란

전북도가 최근 노후화된 전북어린이 회관을 철거하고 어린이창의체험관을 건립하기 위해 실시한 건축설계 공모에서 표절 의혹이 제기됐다.

25일 전북도청 홈페이지 게시글에는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묻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에는 "얼마 전 이 두 작품에 대해 비슷하지 않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중략)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한 장의 그림파일이 첨부됐다.

첨부된 그림파일에는 지난해 5월 개관한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과 전북어린이창의체험관 설계를 비교하는 내용이 담겼다.

작성자는 나란히 배치한 두 설계도 밑으로 '각도만 틀릴 뿐 많은 부분이 닮았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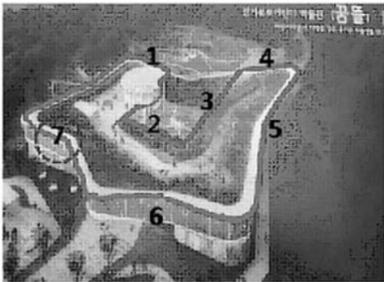
실제 두 설계도는 건물의 형태와 배치 면에서 많은 유사성을 보인다.

내부 설계가 공개되지 않아 표절 여부를 단정지을 수는 없으나 사진상 겉보기에 비슷한 부분이 눈에 띈다.

이 글을 읽은 도민들도 '두 건물이 매우 비슷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도민들은 게시판을 통해 '같은 사람이 그린 것 같다', '위치만 다르고 많은 부분이 닮았다', '표절이 의심된다'는 의견을 조심스레 내비쳤다.

전북도는 건축설계 공모작 선정에 앞두고 불거진 표절 의혹에 당혹스러워 눈치다. 도는 지난 14일부터 접수를 받고 21일 심사를 거쳐 이날 표절 의혹이 불거진 설계를 포함해 두 개의 설계 중 공모작을 선정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2016.5.4 개관 지상2층



A작품 7번의 매스가 B작품에서 1번과 함께 매스를 형성하고 5,6번의 각도만 틀린 형태를 보이고 있어 B작품이 A작품의 많은 개념을 모방하였다고 보여짐

B 전라북도어린이창의체험관 2016.7.14 접수 마감한 건축설계 공모 작품, 지상2층



전북도청 홈페이지 게시글에서 전북 어린이창의체험관 설계 공모 표절 '의혹'을 제시한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묻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제시한 그림 파일

앞두고 불거진 표절 의혹에 당혹스러워 눈치다.

도는 지난 14일부터 접수를 받고 21일 심사를 거쳐 이날 표절 의혹이 불거진 설계를 포함해 두 개의 설계 중 공모작을 선정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게시판을 통해 불거진 표절 의혹에 대해 "오늘 오후에 공모작 선정을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공모작 선정 발표 전에 설계의 표절여부를 판단해 말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설계자에게는 내년 4월 착공 예정인 어린이창의체험관(총사업비 220억원 규모)의 기본 및 실시 설계권이 부여될 예정이다. /뉴스

더위먹은 '전북' 온열질환자 14명

50대 이상이 9명으로 가장 많아

최근 완주지역 낮 최고기온이 35.9도까지 치솟는 등 불볕더위가 지속되면서 열사병 등 온열질환자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특히 폭염에 취약한 노약자나 어린이, 만성질환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한편 한낮에는 발열 등 야외활동을 자제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25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현재까지 총 14명의 온열질환자를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했다.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이 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가 2명, 30대 이하 3명 등이었다.

발생 증상은 열탈진이 9명으로 가장 많았고 열사병 4명, 열경련 1명이었다. 발생 시간대는 낮 12~오후 5시가 가장 많았고, 발생 장소는 논·밭과 공사장, 도로 등이었다.

실제 지난 23일 오후 3시23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도로에서 정모(63)씨가 길을 가던 중 쓰러져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또 지난 22일 오후 3시26분께 정읍에서는 추구를 하던 김모(14)군이 무더위로 인해 경련과 어지러움 증상을 호소한다는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

이처럼 폭염으로 인한 피해 환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다

히도 현재까지 목숨을 잃은 환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북소방본부는 폭염 대비를 위해 오는 9월 말까지 도내 10개 소방서별로 74개의 119응급구급대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

또 온열질환자 발생에 대비해 열음조끼와 열음팩, 주사용 생리식염수, 정제소금 등 9종의 응급장비를 119구급차량에 비치했다. 만약 열사병 증상 또는 열사병 등 온열질환 증상이 나타나면 경우 기도를 확보하고 환자를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휴식을 취하게 해야 한다.

이후 체열을 서서히 낮추고 의식이 있으면 소금물 또는 전해질(이온) 음료를 마시게 하고 환자의 상태를 조심스럽게 관찰하고 쇼크증상이 나타나는지 관찰해야 한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더위가 절정에 이르는 낮에는 농사일 등 체력소모가 많은 외부활동을 삼가야 한다"며 "몸에 이상이 발생했을 경우 119에 신속하게 신고하거나 뜨거운 햇볕을 피해 그늘에서 휴식과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탈진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온열질환은 폭염에 오랜 시간 노출됐을 때 체온조절 중추에 장애가 생겨 열사병, 열탈진, 열실신, 열부종, 열경련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다. /박용주 기자

"방산 납품 지연 지체상금 부과, 귀책사유 있어야"

권익위, 방열기 납품업체 관련 방사청에 "면제" 의견 표명

방위사업청과 납품 계약을 맺었다가 납품 일자를 맞추지 못해도 해당 업체에 귀책사유가 없다면 지체상금(遲滯賠償金)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는 25일 "납품 지연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납품 업체에 지체상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를 면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방사청에 표명했다고 밝혔다.

지체상금이란, 채무자가 계약 기간 내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다. 일반적으로 납품 지연 기간에 따라 금액이 결정된다.

권익위에 따르면 방열기(放熱器)를 납품하는 A업체는 지난 2014년 7월 방사청과 6억원 규모의 납품계약을 체결했다. 이 업체는 납품 일자를 한 달 정도 넘긴 지난해 4월에 방열기

를 납품했는데, 방사청은 납품이 늦었다는 이유로 이 업체에 3500만원의 지체상금을 부과했다.

A업체는 "우리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납품 지연이 아니다"라며 지체상금 면제를 요구했으나, 방사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업체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방사청은 관련 규정에 따라 견본품을 제공해야 하지만 해당 계약은 견본품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사유로 이를 거부하다가 20여일이 지나야 견본품을 제공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품질 검사를 주관하는 국방기술품질원은 품질 검사에 필요한 수량이 2개인데도 이보다 적은 1개의 수량으로 검사를 진행, 예정 시기보다 뒤늦게 검사가 완료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용주 기자

전자정부서비스 이용률 76.7%... 4.2%p ↑

'정보검색 및 조회' 78.9%

지난해 전자정부서비스의 이용률과 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만 16세~74세 국민 4000명을 대상으로 가구방문 면접조사를 통해 지난해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상태를 조사한 결과 전자정부서비스 이용률은 76.7%로 전년보다 4.2%포인트 상승했다고 25일 밝혔다.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의 주된 목적은 '정보검색 및 조회'가 78.9%로 가장 많고 '행정민원서류 신청·열람·교부'(66.2%)가 뒤를 이었다.

모바일 서비스의 이용목적도 '정보검색 및 조회'(79.3%)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공공서비스 예약·신청(61.4%), 행정·민원서류 신청·열람 및 교부(29.4%) 순이었다.

전자정부서비스 이용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41.9%가 개인정보보호 등 보안강화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러 '최신성 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38.9%), '사용자 맞춤형 콘텐츠 제공'(38.5%), '본인확인·인증절차 간소화 또는 대체수단 제공'(37.1%) 등이 뒤를 이었다.

전자정부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93.6%로, 2014년(85.8%)보다 7.8%포인트 상승했다.

만족 이유로는 '신속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어서'(29.0%), '편리한 시간·장소에서 이용할 수 있어서'(28.5%), '필요 정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서'(19.5%) 등을 들었다.

연령대별 이용률은 보면 16~19세가 94.7%로 가장 많았고 20대 93.8%, 30대 93%, 40대 83.3%, 50대 69.3%, 60~74세 34.7%로 나타났다.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실태조사 결과는 국가통계포털(kosis.kr), 행정부(www.moi.go.kr) 및 한국정보화진흥원(www.nia.or.kr) 누리집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뉴스

도, 상반기 재정 집행 '최우수'

김제·남원·익산, 전국 우수기관 선정

전북도는 행정자치부 주관 2016년 상반기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 실적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조기집행은 1/4분기부터 목표율을 상향하는 등 4~5월에 집중적인 자체 집행목표율을 정부목표보다 3~4%포인트 높게 설정해 14개 시군과 함께 월 목표치 초과 달성하도록 노력한 결과로 보여진다.

실제 6월말 정부목표는 59.5%이지만 자체목표는 63%를 상향했다.

또한 각 시군의 경우 그 어느 해보다도 실적이 우수해 김제·남원·익산이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전 지방자

치단체를 대상으로 6월말 기준 조기 집행실적과 민간실집행실적, 예산규모 등 총 4개 항목에 걸쳐 진행됐다.

이로써 행정자치부로부터 기관표창 및 재정 인센티브(특별교부세)를 받게 되며 도 자체적으로도 시군에 특별조정교부금 4억 원을 내려 보낼 예정이다.

도 황철호 예산과장은 "지방재정의 조기집행은 계획된 재정사업의 시기를 앞당겨 집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등을 도모할 목적으로 이뤄진다"며 "도는 올 하반기에도 적극적인 예산 집행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민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여름방학스피치 특강모집
스피치·응변·면접·웃음치료·시낭송

- ◎ CEO, 2%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귀하에게 날개를 단다
- ◎ 감성과 파워 스피치로 언력(言力)의 시대에 성공의 날개를 단다
- ◎ 소통과 감성의 시대 필수과목을 이수해야 날개를 단다

(김양욱 전담교수의 전문강사지도)

- 전주교육대학교 겸임교수 · CEO 과정 담당교수
- 전북대 교양학부 (토론과 면접) 전담강사
- 한국응변인협회 전직회장
- 전북 최초 스피치 면접과목 강의를
- 한국스피치&리더십컨설팅 대표
- 스피치 리더십 경력 41년 강사 및 스피치 칼럼리스트
- 저서: '365일스피치커뮤니케이션', '나를 세운 말, 말, 말', '스피치노하우' 등

※부별: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일반부, 면접지도, 개인지도, 주말반

강의특징: ① 41년의 지도경험과 노하우로 알차고 재미있는 주2회교육
 ② 각종대회 출전지도(대통령상 2회, 국무총리상 2회 및 최우수연사 배출)
 ③ 김양욱의 전문강사가 특별강의 함
 ④ 차량운행(유치부,초등부)함 ⑤ 그룹강의는 매주 2회

상담전화 285-6676, 231-6669 010-7304-5665

(사)한국응변인협회, (사)한국응변단체총연합회
부설 . 한국스피치 & 리더쉽 컨설팅
한국스피치 & 면접 아카데미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